

5/30/21

설교 제목: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믿음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2장 1-25 절

(출 2:1) 레위 족속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출 2:2)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달을 숨겼더니

(출 2:3)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출 2:4)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출 2: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출 2:6)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출 2:7)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출 2:8)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출 2:9)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출 2:10)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 2:11)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출 2:12)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출 2:13)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출 2:14)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재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출 2:15)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출 2:16)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버지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출 2:17)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출 2:18) 그들이 그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출 2:19)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출 2:20)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출 2:21)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출 2:22)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숨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출 2:23)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출 2:24)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 2:25)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본문은 모세에 대해 그의 탄생, 그리고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내린 칙령으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그가 구원받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된 과정, 장성한 후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다가 살인자가 되어 바로의 궁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살기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얼핏 보면 본문의 주인공이 모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인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파악해야 합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기억하셔서 사람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 2:1) 레위 족속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출 2:2)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달을 숨겼더니

(출 2:3)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출 2:4)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멀리 섰더니

모세가 출생할 당시 애굽 땅에는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나면 나일 강에 던져 죽이라는 왕의 칙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출 1:22)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자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달 동안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되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러한 행동은 믿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 족속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에 맡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 11:23)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믿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창 15:13)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창 15:14)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언약이 요셉으로 하여금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유언하게 했고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숨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때마침 목욕하러 하수에 온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출 2: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출 2:6)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녀로 하여금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 더 절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출 2:7)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출 2:8)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출 2:9)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출 2:10)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이 모세의 어미를 유모로 정하여 모세의 어미가 바로의 딸에게 돈을 받으면서 모세를 기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모세의 어미가 모세를 5 살이 되기까지 길렀다고 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의 어미는 모세가 5 살이 되었을 때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출 2:11)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출 2:12)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 7:23) 나이 40 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 40 이 되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의분에 사로 잡혀 애굽 사람을 쳐죽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이런 행동이 믿음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히 11: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히 11: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 11: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애굽 궁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궁중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공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 5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모세에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불러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후 35 년을 바로의 궁에서 애굽 학문을 배우며 지냈으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나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여야 했습니다  
(출 2:13)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출 2:14)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재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출 2:15)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미디안 땅에 살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출 2:21)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출 2:22)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숨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미디안 땅은 시내 반도의 남쪽 호렙산 부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40 년간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훈련시키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출애굽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출 2:23)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출 2:24)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 2:25)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십니다.

본문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 즉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입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민과 이방인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따라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언약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엡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엡 2: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엡 2: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엡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 2: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엡 2: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언약 밖에 있어 하나님이 없고 따라서 소망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